

9월 Market Index			
	코스피 7051.64 (+97.12)		코스닥 830.37 (+18.49)
	금리 (연) 3.910 (+0.009)		환율 (원/달러) 1336.40 (-9.20)

1·2호 사업에 알래스카 LNG까지 대미투자, 3500억 달러 한도 넘나

**산업부, 1·2호 협상 경과 보고
원전 등 1·2호 사업 1423억 달러
고물가·비용 등 가용액 상회 가능성**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이달 중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투자 금액이 양국 이 합의한 가용액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3500억 달러를 넘어서는 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미 투자 한도 방어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국회와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대미 투자 프로젝트 1호와 2호 대미 투자 협상 경과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미투자 1호는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

으로 확정됐다. 당초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로 198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이 250억 달러를 제시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은 끝에 최종 223억 달러 선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2호 사업은 미국 현지에 원자력 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방안으로 정해졌다. 한미 양국은 원전 8기 건설과 함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방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 노형 2기 건설에 합의한 상황이다.

3호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시추해 파이프라인을 통해 남부 나키스키까지 130km를 끌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1~2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도 참여할 경우 전략적 투자액으로 설정해 놓은 대미투자펀드의 가용 재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미국과의 관계 협상에서 조선 협력 1500억 달러와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엔시날 사업(223억 달러)과 원전 8기 건설(약 1200억 달러) 등 1~2호 사업이 모두 진행될 경우 총 1423억 달러로 전략적 투자액(2000억 달러)의 71%가 넘는다. 여기에 알래스카 LNG 사업이 포함되고, 미국 현지의 고물가, 인허가 비용 상향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가용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김혜경 여사와 브리짓트 마크롱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韓-프랑스, 군사·안보·방산 협력 심화… 원전·AI도 협력

이재명 대통령-마크롱 정상회담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MOU 6건, 민간투자 협약 1건 체결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안보·방산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하기로 했다. 또, 원전과 인공지능(AI) 등 첨단 경제산업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위해 긴밀히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대통령 관저

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여섯가지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 등 협정 2건과 AI·반도체·양자 기술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 등 MOU 6건, 민간투자 협약 1건을 체결했다.

특히 국방 안보 협력의 실질적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보안당국에 프랑스 측 국방·국

가안보사무국장을 추가하고, 군사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열람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긴밀한 공조 및 실질적 기여에 대해서도 양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社 告

메트로경제 ‘2026 물류&모빌리티 포럼’ AX가 여는 혁신의 물류·모빌리티

물류와 모빌리티 산업에서 AX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AI는 물류와 모빌리티의 생산성, 효율성, 운영방식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탄소중립 규제는 물류·모빌리티 분야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AX는 비용, 효율, 탄소중립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등 여러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라는 허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AI→빅데이터→이동의 최적화→에너지 절감→탄소감축→지속가능한 미래 물류·모빌리티 완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기 위해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라는 주제로 11번째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 ◆ 행사명 : 2026 물류 & 모빌리티 포럼
- ◆ 주제 : ‘AX(인공지능 전환)×GX(녹색전환)’, 지속 가능한 물류·모빌리티
- ◆ 일시 : 2026년 9월16일(수) 14~17시(내빈 티타임 13시30분~14시)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 ◆ 주최 :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
- ◆ 등록 :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문의 : 물류&모빌리티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metro

청년취업자 수 46개월째 ↓ 고령층은 늘어 ‘양극화 심화’

데이터처, 8월 고용동향
전체 취업자 2915.1만명 0.6% 늘어
농림어업·숙박및음식점업 감소폭 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고용 지표가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청년층 취업자가 46개월 연속 감소하고 주요 기간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부진도 장기화하면서 고용 시장의 뚜렷한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4000명(0.6%)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3월까지 두자릿수를 기록했으나, 중동전쟁 여파로 4월(7만4000명)과 5월(-4만명) 크게 위축됐다. 이후 6월(6만3000명)과 7월(10만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확대되며 회복 흐름을 탔다.

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18만6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 서비스업(7만3000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4만5000명) 등 대면 서비스업 및 복지 부문이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농림어업(-10만9000명), 숙박및음식점업(-6만1000명), 제조업(-3만8000명), 건설업(-3만2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은 26개월, 건설업은 28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줄

었다. 연령대별 고용 양극화도 뚜렷하다. 60세 이상(19만1000명), 30대(9만1000명), 50대(6만2000명)에서는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20대(-16만4000명)와 40대(-1만7000명)는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34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3000명 줄어 4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 역시 44.1%로 1.0%포인트 떨어지며 28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18만명)는 늘었지만, 취약계층인 임시근로자(-5만명)와 일용근로자(-1만7000명)는 일자리가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255만1000명으로 8만9000명(3.4%) 감소했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청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이전과) 비슷한데 쉬었음에 빠지는 인구들이 실업으로 이동하는 것 같다”며 “정부가 청년인턴 등 제도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도 청년 쉬었음 감소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빈 국장은 “전체 지표로 봤을 때 아직 청년 고용률 등이 확연하게 플러스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용 상황 전반이 좋아지면서 쉬었음이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국회 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키로…증인 채택은 불발 /사진 뉴시스
- ▲한·중앙포 정상회의 대비 테러경보 단계적 상향…“선제 대응태세 유지”

- ▲한 총리, ‘한동훈의 김승원 수사기록 공개’에 “관계기관이 유출 경위 확인하도록 지시”
- ▲한동훈 “김민석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것…검찰로부터 어떤 자료도 받은 것 없어”

- ▲與 “형소법 개정안 후속조치 野와 합의…100개 부칙조항·39개 개별법 발의”
- ▲파병 검토 영향?…이란 사법부 수장, 내주 방한 하려다 돌연 취소